“5·18, 광주라는 지역으로부터 해방시킬 때”

5·18 이들이 있어 광주는 외롭지 않다

〈3〉 ‘오월 철학자’ 김상봉 교수

2005년 전남대 특채 후 심층 연구
5·18은 참된 공동체 보여준 것
지난해 ‘5·18을 생각함’ 출간
철학적 사유 통해 학문적 재정립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민중항쟁은 ‘오월의 철학자’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56) 교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에 진학한 그는 이전만하더라도 역사와 민중을 신뢰하지 못했다. 1975년 부산대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으로 부산이 초토화되고,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을 접하면서 김 교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김 교수는 “‘내가 못한 걸 저들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두 항쟁을 통해 역사와 민중을 막연한 경멸과 무시보다는 존경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 철학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김 교수는 민주·인권·평화로 대표되던 5·18을 철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이다. 5·18 정신을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학문적으로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 철학적 사유가 5·18이라는 역사와 만나면서 새로운 철학이 잉태되고 있다.

김 교수가 5·18을 철학적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5년 전남대에 특채돼 광주로 내려오면서부터다. 당시 김 교수는 독일 마인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광주행이 결정되자 한 지인은 “선생님, 마음의 고향으로 가시네요”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김 교수는 광주의 공기를 호흡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오월의 눈물, 상처와 같은 구체적 양상들을 알게 됐다.

“자기 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 소명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자기의 역사를 철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기의 역사와 부딪치면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실을 비판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헤겔·칸트가 정립한 철학은 새로운 철학을 하기 위한 학문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5·18에 대한 연구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가 지난해 펴낸 ‘철학의 헌정-5·18을 생각함’은 그가 광주에서 오월을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조망한 내용들을 묶은 결정체로, 그가 5·18에 보내는 철학적 헌사다. ‘철학의 헌정’이라는 표제도 5·18에 대한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10년 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다.

김 교수는 5·18은 하나의 완성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동학농민전쟁의 ‘최소한의 평등사상’,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 통일과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4·19의 정신이 하나로 묶여서 ‘모두가 가능한 자유’가 있는 이상적인 나라를 외친 5·18로 실현되고 완성됐다는 것이다. 모두가 온전한 공동체의 나라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폭력’에 저항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김 교수는 “극한의 상황에서 5·18이 보여준 것은 ‘참된 만남에 입각한 공동체’”라며 “5·18 당시 고통을 분담한 헌혈, 불의에 저항한 총, 나눔과 상생을 보여준 주먹밥, 이 세가지가 5·18과 참된 만남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을 대표하고, 사랑이 육화되면 이 세가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항쟁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광주와 부산이라는 두 도시가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18은 부마항쟁에서 잉태된 진리의 빛이 광주에서 불꽃으로 터져 나오는 사건이라는 의미다. 그런 차원에서 4·13 총선 결과는 ‘제2의 부마항쟁’이라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수혜를 받아오던 부산과 마산 청년들이 박정희 정권에 항거했듯,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번 선거에서 표출됐다”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광주가 잘 화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36주년 기념 학술포럼’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5·18 정신을 광주정신으로 규정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5·18정신을 ‘광주정신’이라고 부를 때, 광주가 5·18을 스스로 지역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대의가 자유·평등·박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프랑스 정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며 “5·18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라는 지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광주가 5·18 앞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라도 이제 광주와 5·18을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성찰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5·18 왜곡 최초 생산자는 신군부”

오승용 교수 오늘 학술대회 발표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최초 생산자는 학살 당사자인 신군부 세력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12일 공개한 논문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심화 : 분석과 대안’을 통해 최초로 항쟁의 성격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 유포한 주체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오 교수는 논문에서 “5·18 왜곡의 최초 생산자로서 신군부는 5·18 이전부터 북한의 남침 위협을 강조하면서 5·17 비상계엄령 확대의 명분을 찾으려했고, 5·18 항쟁이 일어나자 이를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의 살인적 진압은 은폐했다”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어떻게 왜곡했는가를 규명하면 5·18 왜곡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왜곡 담론들은 대부분의 내용이 신군부가 생산·유포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왜곡은 신군부의 왜곡을 정교화하는 작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13일 전남대학교 용지관 광주은행홀에서 전남대 5·18연구소와 5·18기념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백남기씨 쾌유 기원 보성서 걷기행사…내일 200여명 참가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맨 지 6개월째가 되는 14일 보성 백씨의 밀밭에서 ‘밀밭 걷기’ 행사가 열린다.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와 백씨의 가족, 백남기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보성군 웅치면 부춘마을 백씨의 밀밭과 보성역 등에서 ‘일어나요 백남기님! 함께 가요 밀밭으로!’를 주제로 ‘생명과 평화의 밀밭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씨의 아내와 자녀 3명 등 가족,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농민과 시민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백씨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오후 1~2시 백씨의 밀밭에서 밀밭 걷기와 쾌유 기원 리본 달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

“아우슈비츠 거짓말 처벌처럼…5·18 왜곡 형법으로 규제해야”

김재윤 전남대 교수 주장
시민군, 지만원씨 3번째 고소

‘5·18 시민군=북한특수군’이라고 날조한 지만원씨에 대해 3차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지씨처럼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우슈비츠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독일처럼 형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3일 ‘5·18민중항쟁 제3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제기됐다.

김 교수는 “최근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에 의해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거짓말’ 또는 ‘홀로코스트 부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하지만 독일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아우슈비츠 거짓말’ 내지 ‘홀로코스트 부인’을 금지하며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 이를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2일 5·18 시민군 김진순·고광덕씨 등 8명이 자신들을 북한특수군으로 매도한 지만원씨를 광주지검에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그는 5·18의 부인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0조1(벌칙)을 신설해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5·18 시민군과 가족 등 8명은 12일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24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같은 해 10월20일 박남선 등 4명의 고소에 이어 3번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친부 살해’ 남매 구속

어버이날 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매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2일 아버지 문모(76)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는 문씨의 딸(47)과 아들(43)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남매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사는 물론 판사 앞에서도 범행 여부와 동기에 관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금품선거운동 혐의 수사

검찰이 지난 4월13일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 뜻을 두고 당내 경선에 뛰어든 예비후보가 불법 금품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포털사이트나 SNS 등을 활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바이럴(Viral) 마케팅’ 업체 D사와 C연구소의 사무실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 인지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글을 밀어내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동구청장 재선거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모 정당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생선 수백마리 훔친 교도소 동기

쌍나팔

○…영광의 한 건어물 가게 생선건조대에서 보리 굴비와 비슷한 부세(민어과의 바닷물고기) 수백 마리를 훔친 교도소 동기들이 나란히 쇠고랑.

○…12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57)씨와 구속영장이 신청된 오모(70)씨는 지난 3월16일 새벽 0시30분께 영광군 법성면 한 건어물 가게 생선건조대에서 300만원 상당의 부세 400마리를 훔친 혐의.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미리 준비한 포대에 부세를 담아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훔쳤는데, 경찰은 “이씨 등이 훔친 부세를 본인들이 먹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했다고 진술하지만 특정 업체에 처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 /영광=이종윤기자 jylee@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융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융 12억 5천만원 있슴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숙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융 6억 3000원만원 있슴, 법인체 인수 가능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 투자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 천 경 매
H. 010-3605-5000